

시민주권 열린 전주... 시민과 함께 번영의 길로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 시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 그는 두 번의 낙선이라는 좌절을 딛고 세 번째 도전 끝에 현직 시장을 꺾고 당선되는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조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대체 불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뛰어 시장에 당선되었다.

시장 당선 이후에는 “시민주권 열린 전주”를 강조하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발맞춘 시장 운영을 약속했다.

현재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민선 9기 전주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조 당선인을 만나 전주의 미래와 시장 철학에 대해 들어 보았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세워지며 시민고충 처리 위원회도 신설, 시정은 이를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Q4. 원주·전주 통합은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선인께서는 “통합을 위해서라면 시장직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원주·전주 통합에 대한 철학과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 아래 초광역 대전환 시대를 맞아 ‘통합’은 지역의 성장 동력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전주·원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산업과 교통,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전북 대도양의 출발점입니다. 정책의 규모화를 위해서라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양 지역 간 ‘신뢰 회복’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 슬로건이 아닌 통합 전부터 양 지역에 이익이 되는 ‘상생’ 또한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통합을 대하는 태도와 이익이 증명되는 이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와 협력을 하니, 실질적으로 이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통합의 길을 여는 방법일 것입니다.

Q5. 당선인께서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성공적인 지방정부와 좋은 행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 ‘일 잘하는 지방정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슬로건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궤를 함께 하는 것은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인 ‘시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시민과 도민민을 바라보고 행정 체계를 전환하고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놓아뒀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정은 역시, 낮은 문턱 속에서 시민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행정으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Q6. 전주를 ‘피자컬 시 특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피자컬 시 특별도시란 어떤 도시이며, 전주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

까요?
- 지방 주도 성장의 경제적 중심은 산업과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AI 혁명입니다.

AI는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도구로, 전주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주형 AI’를 개발해 디지털 비서를 통한 행정 효율과 정책 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AI 기반 경제는 결국, 사람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을 전주에서 입증하겠습니다.

피자컬 시 특별시 전주의 핵심 비전은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연구·생산·실증 중심의 피자컬 시 벨트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AI 펀드 조성 △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AI 시민대학 및 통합센터 운영 등 3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 AI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피자컬 시 특별구역 지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드론, 로보 등을 활용해 교통과 돌봄 안전 분야를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 되는 행정 혁신

AI 혁명, 지방 주도 성장의 중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소외되지

않는 시민돌봄 책임도시 조성

Q7. 지방 도시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인구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청년들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늘리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인구, 생활인구, 기업인구 등을 활용,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주를 13개 도시를 있고, 500만 전북인을 품는 플랫폼 도시로 도약시키려고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특히, 청년은 지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이들이 지역에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닌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은 물론, 전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래 먹거리산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 중심이 대책이 아닌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Q8. 당선인께서는 ‘시민 돌봄 책임 도시’를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 시민 돌봄 책임 도시는 저소득층 중심의 아주 제한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취학 전까지 연 100만원 규모의 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보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00원 버스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형 반

값 산후조리 지원 체계 구축, 기본적 건강권 보장 등 아이를 함께 키우는 전주를 만들 것입니다.

신중년과 1인 가구도 빠짐없이 지원하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도입, 보편적 체육 복지 실현, 노후 체감형 복지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러 성평등 전주, 유니버설디자인 전기 택시 도입,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등 장애인도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전주를 통해 시민돌봄 책임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9.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실질축과 같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해야 전주경제 생태계 역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생경제 위축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특별보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접근은 편리한 혁신적 공공에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전주시의 콘텐츠를 담은 테마형 골목과 거리로 상권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에 탄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10. 전주를 ‘아시아 5대 문화 산업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문화와 관광 콘텐츠 산업을 통해 전주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 전주는 유구한 천년의 역사 속에 빛나는 문화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상당한데도 잠들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깨워 K-문화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 전주를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후백제·조선·동학혁명을 관통하는 역사를 활용해 후백제 고도 지정과 역사문화 센터를 건립해 도시 자체를 역사의 시간 위에 놓을 것입니다.

이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영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민관협력의 ‘지역 영화위원회’ 구성, 전주 콘텐츠 중심의 지역 장면영화 유류 배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 한옥마을과 전북 곳곳을 오가는 도심 항공 전주 음식을 살리는 콘텐츠 등을 산업과 융합해 전주만의 문화관광 혁신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Q11. 마지막으로 전주매일신문 독자와 66만 전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저를 선택해 주신 전주시민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귀하게 여기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전주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주의 발전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반드시 증명해 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주 발전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표본으로 전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얼마나 전주가 특별해지는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호 기자

조지훈 당선인이 걸어온 길 지방자치·지역발전 위해 헌신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자가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 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민선 9기 전주시장을 이끌게 되었다.

그는 오랜 기간 지방의회와 지역경제 현장을 두루 경험하며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68년 전주에서 태어난 조 당선인은 전주 동초등학교, 덕진중학교, 동암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무역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그의 청년 시절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했다. 1987년 전북대학교 입학 후 6월 민주항쟁 현장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후 기독교사회운동연합 정책국장 등을 맡아 지역 사회운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이러한 경험은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를 중시

전주시의원 활동 시절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도입 이끌어내

전북경진위원장 지내며 행정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 쌓아

하는 그의 정치 철학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정치에 입문한 것은 1998년이다. 1998년 제6대 전주시의원 당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제8대, 제9대 전주시의원을 연속으로 지내며 16년여 동안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힘써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장 재임 시절에는 전국 지방의회의원 협의회도 적극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과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

다. 또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으로 참여해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탰다.

조 당선인의 정치 인생에서 주목받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2022년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 도입을 이끌어낸 일이다. 전주 서신동 이마트 앞에서 장기간 단식 농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공로로 전북일보가 선정한 ‘올해의 전북인’과 미디어다음 ‘오늘의 인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행정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제11대와 제12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역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했다. 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실무경제 지원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 당선인은 평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그는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시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주권 시장’을 핵심 시장 운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참여 확대를 시장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가 제시한 전주의 미래 비전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청년 정착 기반 조성, 복지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전주의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행복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의 현실 속에서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전주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비빔밥, 전주대사습놀이 등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 자산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해 ‘문화수도’ 전주의 위상을 높여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조지훈 당선인은 스스로를 ‘전주를 연구하고, 전주를 행동하며, 전주를 알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해 왔다. 오랜 의정활동과 경제행정 경험,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의 변화와 발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지훈 당선인의 전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